

- 주요 뉴스: 미국 5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급락,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
 - 연준 윌러 이사, 향후 중립금리 상승 가능성
 - Barron's 등, 6월 ECB의 금리 인하를 예상
 - 독일 1분기 경제성장률, 0.2%로 예상치 부합
- 국제금융시장: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, 위험자산 반발매수 증가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박테크를 비롯한 기술주 강세 등으로 상승
유로 Stoxx600지수는 영국 소비지표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소비자심리지수 둔화 등을 반영해 하락
유로화는 0.3% 절상, 엔화는 약보합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회복세 지연 가능성 등을 반영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2bp 하락

※ 뉴욕 1M NDF 증가 1364.6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66.8원, 0.2% 하락). 한국 CDS 보합

		5/24일	5/23일	전일대비			5/24일	5/2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304.7	5,267.8	+0.70%	국채 금리 10y	미국	4.47%	4.48%	-1bp
	유럽	520.57	521.56	-0.19%		독일	2.58%	2.60%	-2bp
	중국	3,088.9	3,116.4	-0.88%		영국	4.26%	4.26%	+0bp
	일본	38,646	39,103	-1.17%		한국	34bp	34bp	+0bp
	한국	2,687.6	2,721.8	-1.26%	CDS 5y	중국	61bp	60bp	+1bp
	달러지수	104.72	105.03	-0.37%		EMBI+	-	334	-
환율	유로화	1.0847	1.0815	+0.30%	위험 지표	VIX	11.93	12.77	-6.58%
	엔화	156.99	156.93	-0.04%		WII유	77.72	76.87	+1.11%
	위안화	7.2436	7.2429	-0.01%	원자재	구리	477.9	481.7	-0.79%
	원화	1,369.5	1,362.4	-0.52%		금	2,333.8	2,239.3	+0.20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5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급락,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

- 미시건대학교에서 집계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69.1로 전월(77.2) 대비 크게 하락하면서 5개월래 최저를 기록. 또한 현재상황평가지수는 69.6(전월 79.0), 미래기대지수는 68.8(전월 76.0)로 전월 대비 둔화
- 미국 소비자들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3.3%로 전월(3.2%)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장기(5~10년) 기대 인플레이션은 3.0%로 전월과 동일
- 미시건대학교는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소비자심리가 빠르게 둔화되었으며 이는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. 다만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약 20% 상승했다고 부연
- 한편, 이날 발표된 미국 4월 내구재 수주 실적은 전월대비 0.7% 확대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. BMO Capital Markets는 대출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, 기업의 투자가 2분기부터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연준 월러 이사, 향후 중립금리 상승 가능성

- 월러 이사는 과거 자유무역 활성화와 물가상승률 둔화 등으로 장기간 하락해 온 중립금리가 앞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. 특히 과거에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컸으나 미국 정부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중립금리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

■ Goldman Sachs, 미국 금리인하 예상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연기

- 미국의 5월 서비스업 PMI가 54.8로 전월(50.9) 대비 크게 오른 가운데 경제 및 고용활동이 견조하다는 점을 등을 근거로 첫 금리인하 예상 시기를 기존 7월에서 9월로 수정. 또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준 위원들의 부담도 커졌을 것으로 분석

■ 미국 재무장관, 생활비(living costs) 증가를 우려

- 엘런 재무장관은 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, 식료품 가격 등의 생활비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. 또한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

■ 미국 SEC,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

-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반에크 등의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상장을 승인. 금년 말부터는 뉴욕증권거래소, 나스닥, 시카고 옵션거래소에서 해당 상품의 거래가 시작될 전망

■ 독일 1분기 경제성장률, 0.2%(qoq)로 예상치 부합

- 금년 1분기 소비가 전분기 대비 0.4% 감소한 반면 수출이 1.1%, 투자가 2.7% 증가. KPMG는 에너지 가격 하락과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감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되었다고 평가

■ Barron's 등, 6월 ECB의 금리 인하를 예상

- Barron's는 유로존의 4월 물가상승률이 2.4%로 안정적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ECB가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. Danske Bank는 6월 정치적 금리 인하(Political cut)을 단행한 뒤 12월에 한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

■ 영국 4월 소매판매 2.3% 감소해 예상치 하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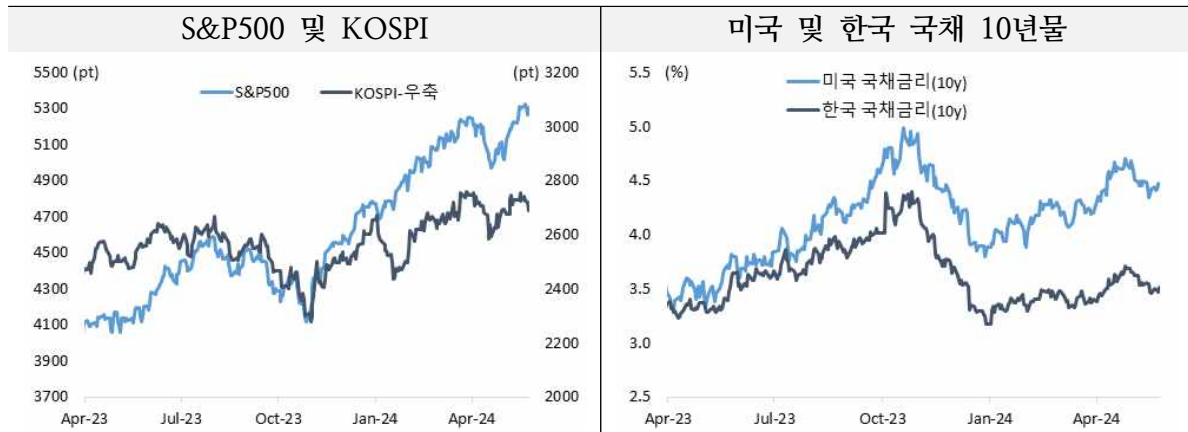
- 영국의 4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-2.3%로 전월(-0.2%) 및 예상치(-0.5%)를 하회. 유동인구 감소로 자동차 연료 판매가 4.9% 감소했으며 의류, 장난감, 가구 등의 판매도 부진. 식품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식품 판매량도 3개월 연속 둔화

주요 경제지표

■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(5/27~31일,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분기 GDP 수정치(5/30일), 독일 5월 CPI(5/29일)
- 중국 5월 PMI(4/31일), 일본 4월 소매판매 등(5/31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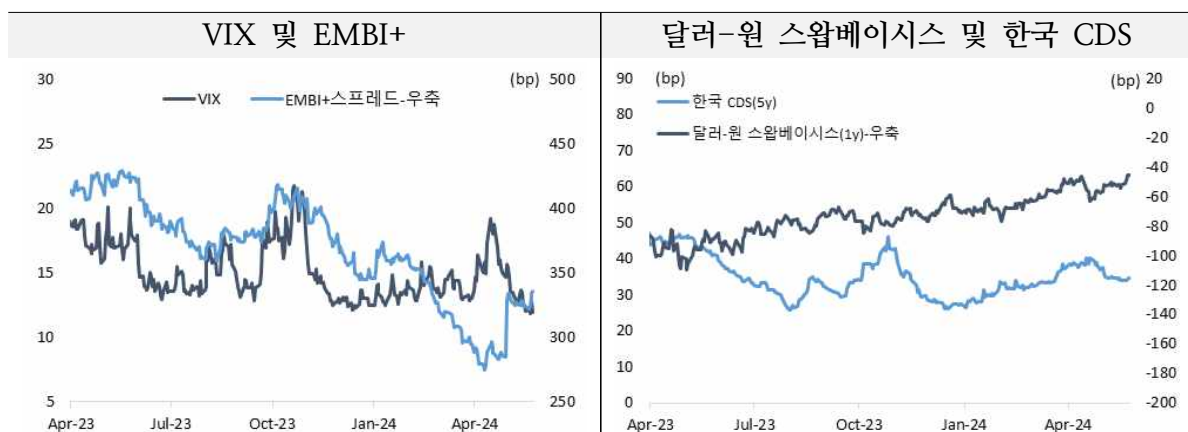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31, E-mail jgbaek@kcif.or.kr